

콜롬비아 상공회의소 연차총회 한국산업 발전 발표

-김도훈 선임연구위원(산업경제연구실)

1. 출장자: 산업경제연구실 김도훈 선임연구위원
2. 출장기간: 2009. 9. 29 (화) - 10. 4 (일)
3. 출장지: 콜롬비아 보고타, 이바게
4. 출장 목적: 콜롬비아 상공회의소 연차총회 한국산업 발전 발표 (콜롬비아 정부 초청)
5. 출장 수행 내용
 - 2009년 10월 1일 (목)부터 10월 2일 (금)까지 개최된 콜롬비아 상공회의소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오전 세션 동안 “한국의 산업발전 경험”에 관해 발표하고, 콜롬비아 상공부 차관 및 상공회의소 대표들과의 토론에 적극 임하였으며, 오후 세션을 주도한 콜롬비아 대통령 및 상공부 장관 등과 인사를 나누는 등 양국 산업협력 증진에 노력하였음.
6. 콜롬비아 측 개별 면담자
 - 콜롬비아 알바로 우리베 (Alvaro Uribe Velez) 대통령
 - 콜롬비아 상공부: 플라타 (Luis Guillermo Plata Paez) 장관, Durate 차관 및 수행 공무원 (Marias Alejandra Arango) 등

- 콜롬비아 상공회의소: Eugenio Marulanda Gomez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, 이바게 회장, 보고타 상공회의소 대표
- 주 콜롬비아 한국 대사관: 홍성화 대사, 전영욱 공사참사관

7. 출장의 성과

- “한국의 산업발전 경험” 발표를 통해 한국산업의 발전상 및 한국 산업정책의 논리 등을 콜롬비아 상공인 및 상공부 주요 공무원들에게 알리고 한국을 role model로 삼으려는 콜롬비아 정부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음.
- 나아가, 콜롬비아 상공부 장·차관과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었고, 나아가 콜롬비아 대통령과의 인사를 나누는 등 양국의 협력 증진에도 이바지하였다고 판단함.
- 부수적으로, 콜롬비아 상공회의소 담당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향후 한국 산업개발의 경험을 전수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음.

8. 발표 주요 내용

-출장자의 주요 발표 내용

- * 한국 산업발전의 개관
- * 60년대 수출진흥과 경공업 발전
- * 70년대 중화학공업 발전
- * 80년대 이후의 기술집약산업 발전
- * 한국산업의 다변화
- 콜롬비아 상공부 차관의 주요 발표 내용
 - * 콜롬비아 정부의 생산성 향상 추진 계획 (Transformacion Productiva)
 - * 인적자본 육성, 인프라 확충, 정부 및 산업계의 협력 증진, 적절한 규

제 등을 통해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 계획

9. 출장자와 관련된 토론 주요 내용

- 한국은 초기 산업발전에 정부의 보조금이 크게 동원되었는데, 콜롬비아의 경우 WTO 등 때문에 어려운 데 산업발전에 정부의 역할이 가능할 것인지?

(답변) 반드시 보조금이란 인센티브가 아니라 하더라도 콜롬비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네 가지 보조적인 지원 수단을 잘 동원한다면, 가능하다고 판단하며, 정부가 인적자본, 인프라 확충 등 각종 인센티브 시스템을 통해 산업계에 정확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

- 상공회의소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Tolima 지방은 농업 (쌀 등 양곡, 축산)이 발전해 있는 지역인데, 제조업을 육성해 나갈 가능성은 있는지?

(답변) 농업도 훌륭히 경쟁력을 키워나갈 만한 산업이라고 판단되며, 이러한 농업의 경쟁력과 연계된 식료품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

- 환율정책은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은지?

(답변) 일단 산업을 육성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자국 통화가 지나치게 평가절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, 한국의 경우 수출을 강조하는 시기에 가능한 한 원화의 평가절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한 바 있음.

- 중소기업을 위한 Micro-finance 등의 필요성?

(답변)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“선택과 집중”을 통한 선별 작업이 필요함. 다만, 서민들의 기업가 정신 고취 등을 위해서는 공공 차원에서 Micro-finance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

10. 기타 보고사항

- 1일 오후 5시 경에 도착한 Uribe 대통령이 당초 예정된 오후 8시까지의 상공회의소장 환영사 및 자신의 강연 등을 마친 후에 저녁 11

시까지 각 지역 상공회의소 대표들의 질의에 일일이 응답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수행한 상공부, 국토부, 노동부 장관 등에게 대담하게 하는 등 매우 성실한 자세로 회의를 이끌어 나간 점이 인상적이었음.